

# 해외한국어방송지원사업의 현재와 향후 정책지원 방안

김지은, 문준서

한국전파진흥원 방송통신콘텐츠진흥본부

{mkje917, james}@korpa.or.kr

## The issues of overseas Korean broadcasting stations and post-policy support plan

Ji-eun Kim, Joonseo Moon

Korea Radio Promotion Agency

### 요약

교포사회에서 한국어 방송국은 현지 교포들과 모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써 재외 교포들 간의 문화공동체 발전과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1] 하지만 이러한 역할과는 별개로 현재 대부분의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은 운영에서부터 제작환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사업에 대해 조망하고 효율적인 정부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려 한다.

### I. 서론

교포사회에서의 현지 한국어방송사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의식,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계승을 위한 매개체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지속된 거주국 동화정책의 영향과 교포 사회에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이 감소함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해외 한국어 방송사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해외 한국어 방송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해외한국어방송사 동향<sup>[5]</sup>

전체 해외 한국어 방송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의 운영과 유통 상황을 보더라도 그 위상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이민 1세대들, 혹은 영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한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대들의 한국어 방송 시청률은 현저히 낮다. 방송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지역사회 소식을 전하는 자체 제작 로컬 뉴스나 생활의 가장 밀접한 부분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과 같은 콘텐츠가 그나마 관심이 높은 편이다. 현지 사업체의 주요 수입원은 TV광고 매출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수주의 타격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3]

중국의 경우에도 주(州)급 방송국인 연변 인민 방송국, 성(省)급 방송국인 흑룡강 조선어 라디오 방송국을 제외한 한국어 방송사들은 시설이 열악하여 방송 송출에서부터 제한 요소가 많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큰 방송국들이 비교적 광범위한 방송 가청취권을 갖고 송출하고 있긴 하지만 동포 2세, 3세가 조선족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면서 한국어 방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떠나는 젊은 조선족 세대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중국의 소수

민족 동화정책의 영향으로 조선어를 배울 기회가 줄어들어 조선어 구사가 가능한 젊은 세대 층의 감소현상은 한국어 방송이 외면 받는데 일조하고 있다. 조선어 방송 프로그램 역시도 젊은 세대 조선족들의 취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가장 큰 문제점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까지도 사라졌다는 점이다.[2]

러시아 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의 한국어 방송사들은 국영에서 민영으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제작 능력, 방송 송출여건, 시청자들의 시청여건 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오세아니아 지역, 캐나다, 파라과이, 브라질, 이집트, 몽골 등지에서도 해외 한국어 방송국은 각 지역의 연락망과 문화전파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형태라 운영에 있어서 제한적 요소가 많다.[4]

<표 1> 해외한국어방송사 현황 ('09.11기준)<sup>1)</sup>

대륙별 (방송사 수)	국가별	TV	Radio	R/TV	위성 TV	계
아시아(22)	중국	2	5	10	1	18
	몽골	1				1
	일본		1			1
	인도네시아	2				2
CIS연합(5)	러시아	1	1	1		3
	카자흐스탄		1			1
	우즈베키스탄	1				1
북미(57)	미국	22	26	3	2	53
	캐나다	4				4
남미(2)	브라질	1				1
	파라과이		1			1
오세아니아 (5)	호주	1		1		2
	뉴질랜드		1	1	1	3
유럽(1)	스페인	1				1
아프리카(2)	이집트				1	1
	케냐	1				1
총계		37	36	16	5	94

1) 전파진흥원 내부자료 인용

### III. 해외한국어방송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안

#### 1. 자체 프로그램 제작 역량 향상 지원

자체제작 지원은 재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의미가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특히 차세대 재외교포를 고려한다면 자체 제작을 위한 환경기반과 기술적인 지원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국내 방송사에 자체 제작 프로그램 지원 조건의 편성을 전제로 한다면, 해외 동포들과 국내 시청자들과의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지원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지원 중 현지 방송의 현지어 자막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해외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로는 영어와 중국어 등 일부 언어로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자막을 지원하는 범위를 소수언어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막지원은 국내 방송사에서 자막을 만들어 넣어 보내는 경우와 현지의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넣는 두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는 원 제작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마땅하다. 아랍권, 독립국가연합 등지의 소수언어까지 자막 지원 범위를 넓힌다면 타 국가에서의 해외한국어방송 접근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한류의 대중성을 확대하는 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다.

현지 방송을 시청해 보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점은 방송으로 송출되는 결과물의 완성도나 퀄리티 면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래픽 효과, 이미지의 선정과 활용, 음향 등 그들의 미흡한 부분을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고품질 소스 어플리케이션으로써 양질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방송사업자와 해외 한국어 방송사 간의 마켓 플레이스를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된다면 서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 화면과 같은 소스 제공의 경로로 심본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지 방송사의 제작 퀄리티를 높이는 한 편 수익성까지 향상시키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2.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실무 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어려움 중 하나는 방송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으면서 방송 일도 유능한 사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 인력도 급변하는 방송 제작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대개는 보수가 낮거나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봉사정신을 모티브로 하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아래에서 전문적인 방송 연수 과정이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연수 지원 프로그램도 어느 특정 분야로 한정된 연수과정이지 아닌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기자, 기술 엔지니어, 경영 책임자 등 다방면의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현지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맞춤형 연수과정으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수 교육을 받은 후에도 교육에 관한 효과를 측정하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피드백 시스템도 함께 마련하여 활성화하면 양측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 상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연계

해외 한국어 방송사와 국내 방송사의 공동제작을 통한 프로그램 교류 또한 민족의 주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동질감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공동제작이라는 명목아래 해외 한국어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의 자체 제작 능력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재외 동포 방송사들은 국내의 선진 방송 기술을 습득하고, 국내 방송사들은 동포 방송사들과의 합작으로 제약이 많고 번거로울 수 있는 현지 제작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비 절감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점증적인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한동안 침체되어 있는 한류 시장의 확산을 도모하여 재외 동포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까지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6]

### IV. 향후 해외한국어방송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해외 한국어 방송은 국제 사회에서도 중대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우 열악한 경영 환경으로 인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동포들의 이주·정착의 역사가 짧은 현지 지역이나 동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일 경우 한국어 방송을 위한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해외 한국어방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목표나 정책적인 비전과 추진 방향이 더욱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과 운영, 조직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지원체계의 정비 역시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내의 큰 방송 사업자들은 중복 진출로 인한 국내 방송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운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영세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어 방송과 우리의 콘텐츠가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과 국내 방송사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서 말한 지원책들의 효과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를 수립하여 지원 방안의 근거마련을 위한 노력 역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영기, 한민족 공동체와 언론의 역할, 동북아학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1
- [2] 김원태, 중국 조선족의 언론문화에 관한 연구, 『중국한인연구』,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총서 제8권, 2002
- [3] 김원태, 재미 한인 사회의 한인방송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2002
- [4] 방송위원회, 해외 한국어 방송 실태 조사 보고서 - 독립국가연합, 중국,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방송위원회, 2004
- [5] 손정호, 세계한국어방송총람, KBS, 2009
- [6] 임채완 외, 재외한인언론네트워크, 북코리아, 2008
- [7] 한국전파진흥원, 2009년 해외한국어방송 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실태결과보고, 한국전파진흥원, 2009